

“인간의 삶과 죽음, 모두 ‘집’에 있죠”

화면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작은 집들. 제각각 다른 모양의 수많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가족들이 오랜 세월 만들어간 수많은 사연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집 속에 고스란히 스며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집’을 소재로 작업해온 서양화가 고차분(38) 작가 개인전이 15일부터 27일까지 예술공간 집(광주시 동구 장동 39-28)에서 열린다. ‘마음이 지어 가듯’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올 한해동안 작업한 신작 18점이 나왔다.

이번 전시는 작품이 걸린 ‘장소’, 예술공간 ‘집’과도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문화영 관장이 어릴 적 살았던 집을 리노베이션한 갤러리는 한옥의 서까래가 그대로 보이는 ‘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실, 같은 소재로 작업을 하는 건 힘든 일이다. 늘 출발선이 같기에 ‘확장성’을 염두해 두고 변화를 꾸준히 모색해야 하며, 스스로 매몰되지 않도록 고군분투해야 한다. 이번 전시작들을 보면 고 작가에게는 소재의 ‘제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다채로운 화면과 이야기를 만들어낸 듯 하다.

출품작들은 기존 작품들과는 ‘결’이 다르다. 전작들은 집이라는 개체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세 등 또 다른 이미지들이 중첩되며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이었다. 반면 근작은 노동의 수고를 가능할 수 있는, 촘촘하게 쌓아올린 작은 집들에 추상성이 더해져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 이전 작품이 조형성에 방점이 찍히고 발랄하고 동화적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전시작들은 정제된 듯 차분하고 진득함이 묻어나고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전시는 고 작가의 다섯번째 개인전이다. 2016년 첫 개인전을 열었던 고 작가는 지난 2021년 전남문화재단과 서울옥션이 진행한 경매를 통해 화제를 모으며 컬렉터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예술공간 문화영 관장은 이번 전시를 앞두고 개최 전부터 컬렉터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선판매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역의 젊은 작가 중 개인전 개최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없이 많은 집이 등장하는 ‘숲을 보듯이’ 연작은 각각 파랑과 녹색, 노랑으로 색감을 쌓아올린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가까이서 봐도 좋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숲의 ‘전체’가 보이듯, 몇발짝 물러나 눈길을 주면 숨겨졌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란히 걸린 세 작품은 산맥처럼, 물결처럼 이어져 또 다른 조형성을



예술공간 집에서 개인전 '마음이 지어가듯' 전을 갖는 고차분 작가.

고차분 전, 15~27일 예술공간 집 촘촘하게 쌓인 작은 집 상상력 자극 연작 ‘숲을 보듯이’·‘안식’ 등 18점 서울옥션 후 상승카...작품문의 이어져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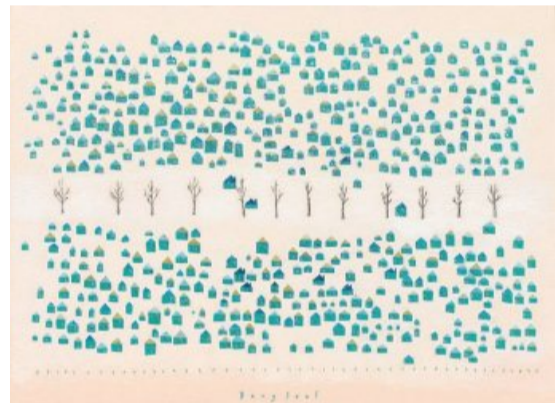
따뜻한 노란색을 주조로 삼아, 색의 농담 차이로 변화를 주며 집을 묘사한 100호 대작 ‘안식’은 아이가 안온함을 느끼는 엄마의 자궁같은 느낌을 묘사하려 했다. 따뜻하고 포근한 집의 풍경 속에 빠져드는 기분이 드는 작품이다. 또 ‘봄소식’이나 ‘겨울을 지나는 이들’ 등의 작품은 툰툰해진 색채가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등 즐겨 사용하는 색채들로 그려낸 작은 집 하나하나에 불감을 몇겹 더 발라 입체감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 마치 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단순하고, 유쾌한 작품도 함께 내놓았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늘 관심이 많았어요. 죽음이 힘들고 슬픈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은 듯해요. 작품의 소재인 ‘집’은 삶과 죽음을 포함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모두 그 안에 있죠. 지난 2016년 첫 개인전부터 같은 소재로 작업했는데 이번 전시작은 초창기 즐겁게 작업하며 시도해 보았던 다양한 방법들을 작품 소재와 분위기에 맞게 이것 저것 시도해본 것들입니다.”

고 작가는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 갖게 된 개인전이라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만큼 고민도 많았다고 했다. 그의 걱정과 달리 그의 ‘집’은 조금씩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들려줄 이야기가 무궁무진함을 이번 전시가 잘 보여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겨울을 지나는 이들’



‘가족의 미래는?’

새로운 희망을 염원합니다

조소 작가 조각전, 19일까지 동구 아크갤러리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조소작가 조각전이 오는 19일까지 광주시 동구 아크갤러리(문화전당로 26번길 10-8)에서 열린다.

‘NEW HOP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대리석, 세라믹,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인간에 의한 환경변화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생명체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작업한 작품을 전시한다.

전장과 질병,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해 동물들의 삶과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는 현실에서 거주지를 잃은 북극곰, 다람쥐, 수달 등을 나무, 돌, 세라믹 등

자연친화적 재료로 오브제와 결합해 표현했다.

계속해서 작업해온 ‘입술’ 시리즈에서는 대리석과 LED 조명을 사용해 선과 악의 언어와 의미있는 메시지들을 전쟁과 사랑 등의 다양한 입술의 표정으로 표현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한 조 작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미술-위그루예술대학원 모뉴먼트-장식 미술 전공, 러시아 성 페테르스부르크 국립 레핀 미술아카데미 조소과에서 수학했다.

지금까지 동영미작갤러리 등에서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 초대작가를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소희 작 '마주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드영미술관, 27일까지 청년작가 기획전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개관 후 매년 청년작가 기획전을 진행해 왔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2022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전’에는 청년작가 김소희, 임송은 작가를 초청해 회화와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약 1년간 연수를 거친 학예인턴 김혜민, 김술의 인턴 결과 보고전이기도 하다.

전시 제목 ‘그림에도 불구하고’는 끝없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

김소희 작가는 인간이 겪는 ‘외로움’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넓은 대지에 ‘홀로’ 서 있는 아주 작은 인물과 단조로운 모노톤의 화면을 통해 외로움을 표현했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무게는 쌓여 있는 ‘눈(雪)’으로 묘사했다.

눈이 녹아 물이 돼 사라지듯, 인간의 외로움 또한 눈처럼 증발해 무너지고 그 과정을 통해 각자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임송은 작가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태도 중 하나인 ‘편견’에 주목했다. 이런 고정 관념은 객관적이고 유행화된 지표에 사로잡혀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임송은 작 'Flowing mountain 12'

데서 기인한다고 본 작가는 여러가지 색채가 규칙 없이 흘러내리는 화면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정형화된 틀 없이 마음대로 흘러내리는 물감처럼, 개인의 특성 또한 단정할 수 없기에 타인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며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은주 작곡 발표회 ‘음악극 빵과 포도주’

오늘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 프리드리히 뢰를린의 ‘빵과 포도주’를 유색한 음악극이 열린다.

이은주 단독 작곡 발표회 ‘음악극 빵과 포도주’가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펼쳐진다.

뢰를린은 시와 문학에 삶의 전부를 바쳤으나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고 긴 유패의 삶을 살다간 인물로 독일 현대사의 선구자이자 독일 민족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공연의 작곡과 음악감독을 맡은 이은주는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에서 음악학 박사를 수료하고 전남

대 작곡 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티롤 음악제에 당선돼 첼리스트 로한 디 사람과 함께 작업하고 연주했다. 이후로도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주자로는 나레이션과 소프라노에 이소희, 플루트에 김보라, 호른에 장현룡, 바이올린에 박승원, 첼로에 조혜원, 피아노에 이유정이 참여한다.

총 3막으로 이뤄진 공연에서 각각의 시가 가진 분위기를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다. 1막에서 ‘놀라움을 일깨우는 밤’, 2막에서 ‘거룩한 신성의 불꽃’, 3막에서 ‘꽃으로 피어날 말들’을 선보인다.

이은주 작곡가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인의 사명은 어두운 세계를 비춰주는 등잔



이은주

이승혜

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뢰를린의 사상을 받아 곡으로 표현하고자했다”며 “이번 음악극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밝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9902-5872.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춤의 한계를 넘어서다

전남문화재단, 17일 남도소리올림픽

전남문화재단이 17일 오후 4시 남도소리올림픽에서 송년 기획 공연 ‘바디콘서트’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조희수 3억 뷰를 돌파한 이날치의 ‘밤 내려온다’ 안무를 맡고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와 콜라보레이션 한 엠비규어스 덴스컴퍼니가 함께한다.

엠비규어스 덴스컴퍼니는 현대무용이라는 장르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관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과 움직임의 안무에 담아 선보이며 방송, 광고,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공연에는 인간의 몸과 춤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율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10개 씩으로 구성돼 있다. 데프트 펑크, 비온세 등의 팝 음악과 헨델과 바흐 클래식 음악, 전통 민요인 아리랑까지 우리 귀에 익숙한 다채로운 음악을 배경으로 한다.

한편 남도소리올림픽은 더욱 좋은 컨디션의 공연을



엠비규어스 덴스컴퍼니 공연 모습

선보이기 위해 한 달간의 정비작업 후 내년 2월 신춘특 별기획으로 올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카스타냐 탱고·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의 시간’을 선

보일 예정이다. 관람신청은 남도소리올림픽 누리집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1-280-5828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